**부활 성야 미사(2018년 3월 31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부활 축하드립니다! 기쁘시죠? 행복하시죠?

예수님 부활절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은총인 예수님의 부활, 너무나도 감동적인 주님의 부활이건만 별 감흥 없는 부활, 별 의미 없는 부활, 나와는 뭐 별 상관없는 부활, 그리고 해마다 맞이하는 똑같은 부활은 혹시 아닌가요? 올해 부활은 무언가 좀 다른 것이 있나요?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 하기 전 몇 주간 정말 정신 없이 바빴습니다. 늘 사순시기는 그렇습니다. 특히 성삼일 동안은 거의 죽었다하고 지냈었는데, 그 일들이 오늘 밤으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도 드디어 부활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밤,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밤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기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과연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한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신앙이 아니면 믿기 힘든 일이지요.

이 믿기 힘든 일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듣고 전하고, 대대 손손 기억해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고 그 사람들이 다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눈에 뭐가 씌워지고, 마음이 굳게 닫혀서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사실, 그들은 늘 기도하고, 하느님 말씀인 구약성서를 늘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눈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었고, 사랑이 없었고, 마음 안에 고집과 자만심이 가득했었죠.

반면에, 부활의 기쁨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들은 평범한 서민들 이었습니다. 삶의 큰 희망도 없고,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게 살았던, 그저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 이었지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신앙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 신앙은 단순히 위로와 희망어린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삶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실재 상황이었고, 삶의 구체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교회의 역사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구원 이야기, 바로 내 자신의 구원 이야기,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새 출발, 희망 가득한 새로운 삶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잊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갇고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부활 이야기입니다. 인생 새 출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적게, 희망은 많이, 푸념은 적게, 호흡은 많이, 미움은 적게, 사랑은 많이 하라. 그러면 세상이 보다 아름답고 행복해 질것입니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금방 흘러갑니까. 2018년 새해가 시작 된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세번 만 더 지나면 올해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여기서, 더 많이 사랑하고, 지금 더 많이 용서하고, 그리고 지금 더 많이 행복하십시오.

이제 우리 앞에 부활의 새 삶이 열렸습니다. 어둡고 답답했던 무덤이 이제는 텅 비어버렸고,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과 희망과 행복이 가득차 있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늘의 사랑과 행복,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내 인생과는 무관한 거창한 기적적인 사건의 보도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의 희망과 행복을 위한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새출발 하십시다.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활의 행복과 기쁨이 그리고 사랑이 늘 여러분들의 삶안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